

“손흥민, EPL 역대 뒀어 중 ‘슈팅’ 최고”



▲ 상대 선수를 따돌리고 드리블하는 손흥민. 사진=sports.khan.co.kr

손흥민(31, 토트넘)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역대 최고 뒀어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영국 90MIN은 전날 “EPL 역대 최고 뒀어는 누구였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손흥민과 사디오 마네(31), 로베르트 피레스(50)의 공격력을 비교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 소속 마네는 리버풀에서 6시즌을 뛰었고, ‘아스널 전설’ 피레스는 2003~2004시즌 아스널 무패우승의 주역이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과거 첼시와 리버풀에서 뛰었던 다니엘 스테리지는 “요즘 아이들은 스트라이커보다 뒀어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7-8살 때 호나우두, 니콜라 아넬카, 디에고 마라도나, 마르코 반바스텐 같이 전형적 스트라이커들을 보고 자랐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킬리안 음바페, 네이마르와 같은 뒀어를 보고 열광하고 꿈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90MIN은 “스테리지의 말에 일리가 있다.”며 “뒀어는 스트라이커만큼 골을 넣을 수 없지만 현대에 인식이 많이 변

했고 매력적인 포지션으로 통한다. 그렇다면 손흥민, 마네, 피레스 중 EPL 역대 최고 뒀어는 누구였을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이 매체는 세 선수의 슈팅과 드리블, 속도 등을 비교했다. 슈팅에선 손흥민이 가장 앞섰다. 매체는 “손흥민이 마네보다 우위에 있다. 둘 다 골든부츠(EPL 득점왕)를 받았지만 손흥민은 완벽하게 양발을 사용한다. 또 다양한 각도에서 골을 넣는 능력도 지녔고 국제축구연맹(FIFA) 푸스카스상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90MIN은 또 “지난 10년 동안 손흥민보다 기대 득점(슈팅이 골로 연결된 확률)이 많았던 선수는 리오넬 메시가 유일했다.”고 전했다. 이어 “역사상 최고 선수인 메시만 세계 최고 파니셔라고 말하는 것은 명칭한 일이다.”라고 손흥민의 뛰어난 골 결정력을 언급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해 어느덧 9시즌을 뛰고 있다. 총 385경기에 출전해 153골을 터트렸다. 토트넘 역대 득점 1위 케인(273골)과 2위 지미 그리브스(266골), 바비 스미스(208골), 클리프 존스(159골)에 이어 역대 득점 6위에 올라갔다.

특히 올 시즌 ‘역대급’ 초반을 보냈다. 14일 현재 리그 8골(1도움)을 터트리며 엘링 홀란드(13골), 모하메드 살라(10골)에 이어 득점 공동 3위를 달린다. 특히 새 지휘봉을 잡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포지션을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꾼 뒤 득점포가 폭발했다. 번리전 헤트트릭을 시작으로 아스널, 리버풀,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지난 2021~2022시즌 EPL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은 2년 만의 득점왕 등극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는 평이다.

유해란, LPGA 투어 신인상 ... 4년 만에 한국 선수 수상



▲ 지난 10월 아칸소주 로저스의 파너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뒤 기뻐하는 유해란. 사진=AFPBB/뉴스1

유해란(22)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인 신인왕 계보를 4년 만에 다시 이었다.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해란은 전날 플로리다주 벨에어의 펠리컨GC(파 70·6268야드)에서 끝난 LPGA 투어 디안나카드리븐 바이 게인브리지 옛 펠리컨(총상금 325만달러)에서 공동 12위(12언더파 268타)를 차지해 이번 시즌 최종전을 앞두고 ‘올해의 신인’을 굳혔다. 신인상 포인트 893점을 쌓은 유해란은 경쟁자인 그레이스 김(호주·619점)이 최종전에서 우승해 150점을 받더라도 역전할 수 없는 압도적 우위를 지켰다.

한국 선수가 LPGA 투어 신인왕에 오른 것은 2019년 이정은6 이후 4년 만이다. 한국 여자골퍼들은 ‘개척자’ 박세리가 1998년 신인왕을 차지한 이후 김미현(1999), 한희원(2001), 안시현(2004), 이선화(2006), 신지애(2009), 서희경(2011), 유소연(2012), 김세영(2015), 전인지(2016), 박성현(2017), 고진영(2018), 이정은6(2019)이 계보를 이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기점으로 미국 진출이 줄어들고 최근 2년 연속 태국 선수들(해티 타와타나짓, 아타야 티따꾼)에게 밀리면서 한국 선수들의 LPGA 투어 지배력도 약해졌다. 하지만 유해란의 이번 수상은 최근 2년 연속 시즌 4승에 머물 만큼 약세를 보여온 한국 선수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 신호탄의 의미를 갖는다.

유해란은 아마추어 국가대표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땀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데뷔해 2020년 신인왕과 통산 5승을 거둔 뒤 지난해 Q시리즈 수석 합격으로 LPGA에 진출했다.

지난해 ‘아마 시절 국제대회에서 겨뤘던 친구들이 LPGA에서 성공적으로 뛰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가졌다.’며 미국 진출을 선언한 유해란은 쉽지 않은

도전의 길을 거쳐 올 시즌 1승 포함 6차례 톱10, 그린적중률 2위(75.72%)에 오르며 최고신인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지난 달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거뒀고 현재까지 상금 15위(150만5,635달러), 그린적중률 2위(75.72%)로 성공을 확인했다.

한국 선수로서 한국과 미국 투어에서 동시에 신인상을 수상한 것은 유해란이 세 번째다. 앞서 신지애와 이정은이 한국과 미국 투어에서 모두 신인상을 거머쥔 바 있다.

유해란은 LPGA 공식 인터뷰에서 “모든 신인이 받고 싶어 하는 상이고, 인기 많은 선수들이 탄 상을 받게 돼 의미가 크다.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우승은 필리파 부미리가 차지했다. 올 시즌 4승을 기록한 부는 올해의 선수상 부문에서 켈린 부티에(프랑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둘의 차이는 27점. 부티에가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유일한 기회는 최종전에서 우승하고 부가 8위 이하의 성적을 거두는 것이다.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 레이저 곰팡이 발톱 치료 Special ★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